

<서 평>

제주문학에 대한 탐구의 결실

- 김영화의 『변방인의 세계』(1998, 제주대학교출판부) -

金 昞 澤*

I

한국문학은 한국인이 한국 사람의 생활을 역사상의 각기 시기에 있어서 그 시대적 특수성에 상응하는 표현 방법인 정음·차자·한문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창조한 문학이다.(정병욱, 『국문학신고』, 신구문화사, pp.26~27). 한국문학에 대한 이러한 정의 내용의 네 가지 줄기, 즉 ①문학의 작자 ②문학의 내용 ③문학의 언어 ④문학의 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해서 제주문학을 정의한다면, 제주문학은 '제주인이 제주인의 생활을 제주어로 형상화한 문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주문학에 대한 이러한 정의 속에는 한국문학을 정의할 때와는 달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남게 된다. 그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①'제주인'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②제주인의 생활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③표준어로 씌어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김영화 교수의 『변방인의 세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제주문학에 대한 탐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문학이 한국문학의 하위개념이기는 하지만, 그 하위개념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문학의 당당한 실체로서 결과적으로는 한국문학을 풍요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고도 가치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 제주대 교수

II

제1부 [제주문학의 특성과 흐름]은 「제주문학의 특성」과 「제주문학 80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저자가 「제주문학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준거로 삼은 것은, 언어·정서·이야기·소재 등이다. 저자에 의하면, 설화나 민요의 담당층 언어는 제주어인 데에 비해 근현대문학의 담당층 언어는 표준어와 제주어가 혼용된 언어이다. 이것은 실제로 제주의 근현대문학에 해당되는 작품들 중에는 표준어와 제주어가 혼용된 언어로 씌어진 작품들이 많다는 데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저자는 제주문학의 특성을 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와 같은, 제주 방언이 적절하게 구사된 작품들에서 뿐만 아니라, 김광협외의 「유자꽃 피는 마을」이나 양중해의 「한라별곡」 등의, 제주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들과, 현길언·오성찬·현기영·최현식 등의 제주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에서도 찾는다. 저자가 제주문학의 특성을 찾기 위해 준거로 삼은 것들 중의 마지막인 소재는 설화·역사·자연·역사적 유적 등으로 구분되어 고찰되고 있다. 제1부의 다른 글인 「제주문학 80년」은 일제 강점기의 1915년에서부터 중앙 문단 편입기의 1995년까지의 제주문학을 시기별·장르별·인물별·발표지별로 정리한 글이다.

제2부 [언어·설화·역사]에 포함된 글들은 「제주어와 문학」, 「설화의 현대화」, 「제주 역사와 문학」 등 세 편이다. 「제주어와 문학」에서 저자는 제주어로 씌어진 김광협·김수열 등의 시와 오성찬·현기영·현길언 등의 소설을 고찰하고 나서 제주어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듯하다.

제주의 작가들이 시도해 볼 것은 제주어 가운데 관형어, 부사어, 의태어, 의성어를 많이 찾아내고 그런 말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속적 인간상을 제시할 때는 전달에 너무 신경쓸 것 없이 대화 부분은 제주어 그대로 기록해 보는 것이다. 토속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표준어로 대화하게 하는 것은 현실감이 없고, 전달을 겨냥해서 제주어를 변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독자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읽어낸다. 다소 애매한 부

분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 경계할 것은 작가 스스로 제주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장난기가 있는 언어사용은 제주어를 모독하는 것이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적어도 시인이나 작가라면 언어에 대한 엄격성과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 점차 사라져 가는 제주어를 살리는 일도 문인들의 몫이다. 따라서 잊혀져 가는 제주어를 되살려야 한다.(pp. 45~46)

「설화의 현대화」에서 저자는 문충성의 「자청비」, 오성찬의 「잡초 이야기」, 현길언의 「김녕사굴 본풀이」·「용마의 꿈」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① 설화의 해석은 제대로 되었는가, ② 설화의 뜻과 정신은 살아 있는가, ③ 변용과 재창조는 성공적인가, ④ 오늘의 시대정신과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⑤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고, 호소력이 있는가, ⑥ 현대 독자들의 취향에 맞게 기법은 세련되어 있는가 등 여섯 가지를, 설화를 소설적으로 변용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으로 들고 있다. 「제주 역사와 문학」은 1898년의 방성칠란과 1901년의 이재수란을 소재로 씌어진 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새」와 1931년 1월에 일어났던 구좌읍 하도·세화 잠녀들의 항일 운동을 다룬, 같은 작가의 「바람 타는 섬」을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한 글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현기영 소설이 민중주의, 반외세주의적 관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의 두 소설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사실을 소설을 통해 전국에 알리는 데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제3부 [제주문학과 그 주변]에 수록된 글은 「일제시대의 제주문학」, 「문학과 이어도」, 「제주 시조론」, 「제주소재 외지인의 문학」 등 네 편이다. 저자는 「일제 시대의 제주문학」에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제시대의 제주 출신 문인들, 즉 김명식·김지원·김이옥·이시형·이영복·오본 등의 문학활동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힌다. 이것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제주문학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이라 할 만하다. 또한 저자는 「문학과 이어도」에서 민요·전설·시·소설에 나타난 이상 세계인 이어도의 의미를, 「제주시조론」에서 김공천·정태부·이인식·이용상·고응삼의 시조를, 「제주소재 외지인의 문학」에서 정지용의 「백록담」/서정주

의 「제주도의 한여름」·「제주도에서」/박목월의 「제주시초(1)」·「배경」/황순원의 「비바리」/오영수의 「실결이 꽃」/정한숙의 「이여도」/이청준의 「이여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 고찰하고 있다.

제4부 [제주인의 시 세계]는 양중해·강통원·한기팔의 시 세계를, 제5부 [항수와 망향]은 제주 출신으로 외지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현·김종원·김광협·강금종 등의 시·소설 세계와 외지 출신으로 제주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최현식의 소설 세계를 각각 다룬 글이다.

III

지금까지 『변방인의 세계』에 수록된 글들에 대해 주마간산식으로 살펴 보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필자의 뇌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방법과 연구방향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연구방법과 연구방향은 함용 같은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다. 전자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변방인의 세계』의 연구방법과 연구방향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이 '분명함'은 상위개념으로서의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위개념으로서의 제주문학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추구되어야 할 당위일 것이다.